

경제

하구독 구조변경 5,500억 짜리 '大物' 영산강 사업 '2차 수주대전'

1차전 승자 한양, 탈락 금호·남양 재점진 금광·동광 등 지역건설사도 '짜깃기' 사활

영산강 살리기 사업의 '2차 수주 대전(大戰)'대전이 시작됐다. 이번엔 5천500억원 상당의 영산강 하구독 구조개선사업으로, 영산강 사업 가운데 최대 규모다. 때문에 2공구 '죽산보' 공사와 6공구 '승촌보' 공사를 각각 외지업체라고 할 삼성중공업과 (주)한양에 선점당한 지역 건설업체의 움직임이 활발하다. 또 밀리런 업체 순위가 바뀔 정도로 안정적이면서도 규모가 큰 수익원인데다, 시공 경험도 쌓을 수 있는 대형 공사이기 때문이다.

논어촌공사는 "영산강 하구독을 확장하고 자연형수로식 여도와 교량 등을 설치하는 '영산강 하구독 구조

변경' 1·2·3공구' 공사를 지난달 30일 발주 공고했다"고 4일 밝혔다. 배수갑문과 수로를 넓히고, 다리를 건설하는 공사로 턴키(설계·시공 일괄임) 방식으로 진행된다. 3개 공구 총 사업비만 5천502억원에 달하며 내년 3~4월 실시설계적격자를 선정 한 뒤 공사를 시작한다.

1공구의 경우 영산호 배수갑문 (240m→480m) 확장을 비롯, 교량 및 수질개선을 위한 저층수 배제시설과 자연형수로식 여도(길이 1.6km) 설치와 홍수 예·경보 시스템 등을 갖추는데 2천39억원이 책정됐다.

2천52억원이 책정된 2공구는 영안호 배수갑문(80m→410m) 확장 공사

등이 포함됐다. 3공구는 1천411억원 들어 영안호와 영산호를 연결하는 연락수로 확장 공사가 주요 내용이다. 이에 대형 건설사를 비롯, 지역 건설사들은 관련 정보 수집 등 수주전에 앞서 다양한 대형 건설사와의 짜깃기에도 안간힘을 쓰고 있다.

한양은 영산강 6공구를 수주한 여세를 몰아 하구독 구조개선사업 2공구도 대표사로 참여, 반드시 따낸다는 각오다.

영안호 인근 도로 확장 공사를 이미 진행중인데다, 자사가 추진중인 사남해안 기동도시 내 공사 부지가 하구독 개선사업에 포함돼 있어 절대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으로 수주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2공구에서는 한양 외에 대우건설과 삼성물산이 참여를 검토중이다.

금호건설은 3공구 대표사로 참여하거나, 컨소시엄으로 들어가는 방안을 놓고 고민중이다.



4일 우리은행 금남로지점을 찾은 고객들이 다양한 형상의 산수석을 감상하고 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은행 영업점 '수석 마케팅' 우리銀 금남로지점 20여점 전시

광주의 한 은행 영업점이 고객에서 수석 전시회를 열어 고객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우리은행 금남로지점은 고객 감동마케팅 차원에서 객에게 산(山) 수석 20여점을 전시하고 오는 27일까지 일반에 공개하고 있다.

전시된 작품은 심판식 지정점이 국내 유일의 산수

석 전문 농민인 경남 삼천포의 산수석에술원(원장 박재원)에서 직접 공수해 온 것으로 어머니상과 거북이, 갈매기·갈순이 등 다양한 모양을 하고 있다. 어머니가 아이를 업고 있는 형상의 수석은 이번 전시회가 광주에서 마련된 점을 기념해 '오월의 어머니'란 이름을 얻었다.

심지점장은 "고객들의 성원에 감사하는 차원에서 전시회를 마련했는데 반응이 너무 좋다"며 "고객들이 평소 접하기 힘든 작품을 보고 편안한 마음을 갖고 자연의 오묘한 진리도 느끼는 것 같다"고 말했다.

금호아시아나 구조조정 순항

12일 대우건설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 생명·강남터미널은 이미 매각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금호아시아나그룹이 금호생명과 서울고속터미널을 매각한데 이어 4일부터 대우건설 매각을 위한 본 입찰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그룹 구조조정도 사실상 8부 능선을 넘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평가다.

4일 금융계와 산업계에 따르면 대우건설 매각 주관사인 산업은행과 노무라증권은 대우건설 매각과 관련해 이날부터 11일까지 입찰을 받아 오는 12일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미국계 AC디벨로프먼트와 아랍에미리트의 국부펀드 중 하나인 아부다비투자자문(ADIA), 사우디아라비아계 투자회사인 S&C인터내셔널 등 3곳이 인수후보자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국내 사모펀드인 MBK파트너스는 인수후보자 명단에서 빠졌다.

금호그룹의 매각가격이 최소 주당 2만원은 넘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여기에 다른 계열사 매각 작업까지 마무리되면 다음달 대우건설 재무적 투자자의 풋백업선 행사로 인한 유동

■ 금호그룹 구조조정

계열사	내용
금호엔터카	KT, 롯데 등 10여곳 인수전 참여
대우건설	4일부터 본입찰. 중흥계 펀드, 미국 부동산 개발업체 등 3곳 경합 12일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금호아시아나(파라저베트남)	지분 49% 흥국계 호텔업체에 매각 추진
금호생명	컨서자산용으로 지분 13.29% 매각
서울고속터미널	코아에프지에 지분 38.74% 매각
금호터미널	대한통운이 금호산업 보유 지분 100% 매입
아시아나 IDT	아시아나항공이 TGY에 지분 100% 팔고 다시 TGY 지분 50%+1주 인수로 손회사화

성 위기에서 어느정도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금호그룹은 이에 앞서 지난 2일 칸서자산운용에 금호생명 지분 13.29%를 700억원에 매각하는 본계약 체결함으로써 금호생명 매각을 일단락 지었다. 또 서울고속터미널 지분은 2천705억원에 매각한데 이어 금호산업이 보유한 광주의 금호터미널 지분 100%를 대한통운에 넘겨 현금 2천190억원을 확보한 상태다.

대한통운은 금호엔터카에 대한 불적분할 작업을 마무리하고 법인설립

등기 절차를 마쳐 렌터카 매각도 연내 마무리 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호엔터카는 5만여대의 차량을 보유할 업계 1위인데다 브랜드 인지도도 높아 매각 작업이 원활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현재 금호엔터카 인수에 관심을 보이는 곳은 롯데와 KT를 비롯해 MBK파트너스 등 10여개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호그룹의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 관계자는 "대우건설 매각은 이달 중순께 윤곽이 드러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중소 기술인력 부족
광주 1.2%·전남 0.9%

경기불황에 따른 취업난 속에서도 광주·전남 중소·중견기업들의 기술인력 부족난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식경제부는 4일 제조업과 정보통신 등 31개 산업분야, 121개 직종의 1만544개 표본사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산업기술인력 수급동향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300인 미만 사업체의 기술인력 부족률은 4.3%로, 300인 이상 업체(2.0%)의 2배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부족한 산업기술인력은 2만952명, 부족률은 3.5%였다. 이는 2004년 조사를 시작한 이래로는 가장 낮은 수준이다. 산업별로 보면 전자산업과 소프트웨어 개발·공급업 분야의 부족 인력이 각각 4천809명과 3천676명으로 가장 많았다. 부족률은 각각 5.6%와 6.4%를 기록했다.

광주는 145명의 기술인력이 부족해 1.2%의 부족률을 보였고, 전남은 102명(0.9%)이 더 필요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내년 양파값 절반 하락 예상 무안 등 파종면적 조절 필요

내년에 양파 값이 최근 시세의 절반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센터는 양파의 재고 동향과 내년도 예상 수확량을 토대로 양파 가격을 전 시한 산업기술인력 수급동향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300인 미만 사업체의 기술인력 부족률은 4.3%로, 300인 이상 업체(2.0%)의 2배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부족한 산업기술인력은 2만952명, 부족률은 3.5%였다. 이는 2004년 조사를 시작한 이래로는 가장 낮은 수준이다. 산업별로 보면 전자산업과 소프트웨어 개발·공급업 분야의 부족 인력이 각각 4천809명과 3천676명으로 가장 많았다. 부족률은 각각 5.6%와 6.4%를 기록했다.

광주는 145명의 기술인력이 부족해 1.2%의 부족률을 보였고, 전남은 102명(0.9%)이 더 필요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또 농가들의 내년산 양파 재배의향 면적이 올해보다 9% 늘어난 2만888ha 로 조사된 데다 모를 심어 재배한 작황 결과가 좋아 실제 밭에 옮겨 심는 면적은 의외 면적보다 더 늘어날 것으로 센터는 전망했다.

여기에 올해와 평년의 단위면적당 수확량을 적용하면 내년 양파 생산량은 130만~150만t으로 사상 최대에 이를다는 것이다.

센터 관계자는 "수입량은 줄었지만 재고량과 생산량이 늘면서 양파 값은 떨어질 전망"이라며 "무안 등 양파 산지에서는 가격 안정을 위해 저장 양파는 조기에 출하하고 양파를 너무 많이 심는 것을 자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현석기자 chadol@연합뉴스

지역 휘발유값 공공행진 1600원 '홀쩍'

광주·전남 주유소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지난해 중순때부터 l 당 각각 1천600원과 1천400원대를 넘어서 연일 공공행진을 벌이고 있다.

4일 한국석유공사의 주유소 종합정보시스템인 오피넷(www.opinet.co.kr)에 따르면, 3일 마감 기준 광

▲ 코스피지수	1,579.93 (+30.01)
▲ 코스닥지수	483.87 (+5.11)
▲ 금리 (국고채 3년)	4.47% (+0.04)
▲ 원·달러 환율	1,178.40원 (-3.60)

※수치는 전일 증가 기준

부동산 경제 전문회사
주식회사 에셋코리아
ASSET KOREA since 2005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714-73 [2층] (법원 앞에서 70m 변호사회관 옆 건물) 또는 (지산 주유소에서 법원 쪽으로 20m)

062)236-3400

asaetkorea.com = 전국 2만여건의 경제물건리스트 / 변호사 무료법률상담 / 경제전문가 무료상담
최고수익률 / 세금계산서발급(양도세감면) / 신속한현금 / 정확한권리분석 / 최상의대우
에셋코리아에서는 꼼꼼하게 현장조사를 실시한 후 수익성 있는 우량물건을 추천합니다.

근린시설/점포	대표이사 010-7570-7525	속속사/상가	목적대상업 010-6320-8443	중장/토지	손해전문사 010-0611-2817
소매지	대지/건물	건평/가	최저가	비고	
단양동	대450,24009	6496㎡	2899㎡	5층 빌딩형	
남구동	대1040,29308	3699㎡	2099㎡	4층 오피스빌	
동광동	대885,22005	1796㎡	1294㎡	미리/상업빌	
쌍성동	대360,211021	11297㎡	3296㎡	7층 점포형	
순천시	대1191,21901	149㎡	4㎡	불량상	
대482,22050	3794㎡	1394㎡	5층 빌딩		
남동	대421,21126	1894㎡	6㎡	4층 빌딩	
송정동	대349,22981	17㎡	1199㎡	3층 상가	
용문동	대1347,242789	51597㎡	148㎡	12층극장동	
송정동	대208,210151	8996㎡	1896㎡	구하·니백회	
양정동	대2171,23810	4897㎡	1794㎡	다형상	
산전동	대53,22865	1899㎡	791㎡	6층옥외동	
개천동	대28,22534	493㎡	397㎡	4층 점포	
영동동	대181,2239	199㎡	199㎡	3층다구	
달서동	대224,2285	2㎡	194㎡	2층주	

분양 **수원롯데마트바로 옆** **임대** **수원아울렛**

※ 2010년 2월 오픈예정 ※

1층 **골프의류**
2층 **아웃도어**
3층 **골프용품**

▶ 넓은주차장
▶ 에스컬레이터 설치
▶ 유명브랜드, M,D

사/원/모/집
남·여 0명 (* 20대 후반~ 30대 초반)
기본급+성과급
부동산 관련학과 졸업, 이력서 지침

* 분양문의 *
(유)코리아랜드컨설팅
959-1033, 010-7723-1033

대인동삼일부동산
☎ (대)223-1140, 5210 헬 011-602-2532
(광주은행 신본점 옆, 대인동 소방서 건너편)

모델·목욕탕 및 각종 상가건물

을 빨리 팔고 싶으시거나 임대 내 놓고 싶으시면 저희 부동산으로 오십시오
저희 부동산은 오래도록 광주시내권 및 시외손님으로 모델·목욕탕 및 각종 상가건물 사실분과 연·연실 분 손님을 많이 확보하고 있습니다.
사장님께서 소유하고 계신 건물을 팔거나 임대 내 놓고 싶으시면 저희 부동산에서 빠르고 정확하게 일해 드리겠습니다.
다만, 사장님께서 저희 부동산에 내놓으신 소중한 건물은 철저하게 비밀보장하여 조용히 팔아드리겠습니다.